

한국 한의학 논문의 몇 가지 문제점[†]

— 학술논문작성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이선동¹⁾ · 이용범²⁾

¹⁾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豫防醫學敎室, ²⁾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Problems of Traditional Medicine Research Papers in Korea

Sun-Dong Lee¹⁾ & Yong-Bum Lee²⁾

¹⁾Dept. of Preventive Oriental Medicine and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Research papers must be expression given by letter that had fixed types, rules and universal sentence languages to inform many persons about study results until present.

when these research paper was considered review, oriental medical papers had some problems, as like difficult contents not to inform absolutely, usage of past language, not considerable in logic history and continuity, and have used not fixed types and rules, error of statistical analysis and research construction. Also centered clinic that had trends important treat tools by drugs ,acupuncture and moxa studies.

In briefly, papers of korea traditional medicine had some several problems. Oriental medicine has very concerns not only korean but other countries in present. and then it will increases much more study in future. For the purpose cope with this concerns korea traditional medicine researchers need much educations of relation department and must recognized much concerns.

Key words : Traditional Medicine Research, Papers Problem,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Preventive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el : 82-33-730-0665. E-mail : sdlee@mail.sangji.ac.kr

[†] 이 논문은 2002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 서론

논문은 과거 및 현재의 학문수준을 밑바탕으로 학문적 새로운 발전에 대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논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으며 올바른 논문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학문내용이나 결과물과는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¹⁻³⁾

한의계에도 과거에 비해 최근 10년 사이에 한의과대학과 더불어 교수수의 큰 폭의 증가, 각대학에 설치된 석박사과정 인원의 증가 그리고 인접 분야의 한의학 관련 논문발표증가와 한의학연구원, 한의학학회의 적극적인 학문적 활동과 산하 학술연구회 등 1년에 상당수의 논문과 단행본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물들은 한의학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의 보건의료분야에 많은 학문적 공헌을 할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발표되는 많은 논문들이 한의학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좀더 유의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논문내용이 너무 난해하거나 논문제목을 학문적 입장에서 고려치 않은 자기 중심으로 선택한다던가 논문양식이나 규칙의 무시, 실험 논문에서 실험설계 및 통계적 결과의 문제점, 참고된 문헌의 문제와 연구 주제의 편중성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한의학 논문의 몇가지 문제점들을 논문작성의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하여¹⁻¹⁰⁾ 고찰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본 논문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표되는 한의학 논문의 질적 향상과 학문적 공헌도가 더 커지거나 개선되기를 바란다.

II. 본론

논문은 '현재의 해당분야 학문수준을 밑바탕으로 연구하여 얻어진 새로운 발전의 결과물을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문자화된 표현물이다'라고 정의⁴⁻⁶⁾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고 올바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현재까지의 학문수준이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문제의식을 갖고 보편적 연구방법론 등을 통한 인식된 공통의 절차 및 과정 등 과학적 지식으로 논문결과를 일정한 양식과 규격에 알맞게 표현하여 최종적으로 관련 학회지에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알리는(to inform) 것이다.³⁻⁵⁾

대체적으로 어떠한 논문이던 간에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서 논문이 쓰여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얻어진 학문적 성과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학문의 일정한 발전에 기여하고 의학분야에서는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논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중요성에 근거할 때에 한편 한편의 논문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 연구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한편 한편의 논문들은 모두 학문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또한 앞으로의 학문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좋은 연구를 이룩하고 질 좋은 논문을 작성한다는 학문에 대한 역사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먼저 논문을 잘 쓰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논문이란 무엇이고,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논문을 쓰며 발표된 논문 한편 한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인식하고 교육받은 후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의학 논문자체를 고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존

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표현의 난해성

논문이 갖추어야할 조건들로는 獨創性, 正確性, 客觀性, 不偏性, 再現性, 追證性, 平易性, 論理性(logic)이 있다.¹⁻²⁾ 그리고 논문을 쓰는 목적은 연구자가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학문적 연구결과와 성과를 두고규정 등의 일정한 틀에 맞춰 출판물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이다. 즉, 자신이 연구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했는데 발표하지 않거나 남이 알지 못하도록 너무 어렵게 써서 본인이나 극히 일부의 전공자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문으로써 갖추어야할 중요조건중에 하나인 '알리기 위함(to inform)'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논문문장의 기본조건은 문장의 명확성, 간결성, 평이성, 그리고 그 시대인들에 알맞은 語感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특히 한의학 논문들이 'to inform'의 요소를 갖지 못한 경향이 많은데 본 연구자의 98(4,10월)에서 99(3월)까지 대한한의학회지에 실린 평이성을 上中下로 분류한 조사¹¹⁻¹³⁾에 의하면 61.8%가 어려워 논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리고 中(17.1%), 下(21.1%)순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난해하였다. 예를 들어 평이한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어려운 漢字나 용어 그리고 문장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논문의 거의 대부분을 한자로 쓴 경우도 있었고¹⁴⁾ 또한 현대인들이나 관련 학자들도 난해한 陰陽五行, 氣, 血, 精, 神, 瘀血 등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이유는 학문적 서비스 개념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를 알려서 학문적으로나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

히려 이러한 연구목적에 返하는 측면이 너무 많아 이것은 한의학논문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 전공자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현대인들이 논문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그리고 간단하고 친절하게 논문을 써야 한다. 또한 설명하는 내용이나 이론들이 가능하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를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논문의 平易性, 즉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⁷⁾

2. 연구 주제의 계획성

연구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 학문적인 先後관계나, 輕重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현재까지의 학문적 발달과정이나 문제점 등을 역사적 관점과 학문연속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연구를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과거 및 현재의 정확한 학문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현재의 학문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발전의 지표를 삼는데도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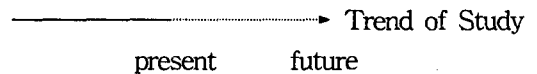


Fig. 1. Continuity in Studies

한의학은 객관적인 판단지표를 가지고 연속적인 발달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서양의학의 학문적 특성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증하고 그 환자에 맞는 약을 가감하는 방법이 중요시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生體를 기준으로 한 학문적 특성과 변증시치

론을 근거로 할 때 한사람의 病者를 치료하는 처방이 수십가지, 수천가지의 처방이 만들어지며 이것이 그 동안의 서양의학에 비해 처방의 종류가 수백배까지 많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학문과 임상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처방을 실험하고 연구해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접근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가지 질병인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처방이 1000~1500개가 있다¹⁵⁻¹⁶⁾ 이렇게 많은 처방에 대하여 하나하나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현재 한의학에서 넘쳐나는 것은 처방수이며 이것이 오히려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방제서적만 해도 대략 2,3천가지에 수십만개의 방제가 수록되어 하나하나 찾아 보기도 힘들 정도¹⁷⁾이다. 또한 철학과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학문적 특성과 여러부분에서 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인 뚜렷한 사상, 이론과 원리 등이 설정되지 않아 이런 저런 가설들이 많이 있는 현실에서 학문의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학문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학문적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학전문가에 그 역할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은 한의학이 이 시대인들의 건강과 질병치료에 있어서 좀더 훌륭하게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학문적인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철저한 학문적 역사성에 근거하지 않는 연구경향은 학문적인 낭비이며 오히려 학문발달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3. 논문의 형식의 준수 여부

논문구성의 과정은 연구주제의 성립, 이미 이루어진 연구의 정리와 요약, 유사한 현상과의

비교, 가설설정 및 실험, 가설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서론, 실험 또는 실험방법과 재료, 결과 또는 실험성적, 고찰 그리고 결론으로 내용의 구분과 배열이 이루어져서 발표¹⁻³⁾된다. 이러한 논문구성과정과 배열은 논문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논문내용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유의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목을 정할 때는 내용을 뚜렷하고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독자의 눈을 끄는 표현 등으로 초록을 더 압축해 놓은 상태로 하거나, 서론은 문제의 설정, 범위,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또는 연구를 시작한 동기 등을 말하고 또한 연구에 관한 역사적 사실 등을 들어 논문의 독창성이 어떤 점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거나 또한 연구나 실험결과는 간결하고 풍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거나 등이다. 또한 인용문헌, 영문 및 국문 초록, 註와 참고문헌, 단행본과 논문 등의 기입법, 실험결과의 table과 figure의 올바른 표현 등은 정확한 과학논문을 쓰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의학 논문은 너무 문제점이 많다. 발표되는 논문의 분야 및 학문적인 특성에 따라 심사규정이나 투고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문자와 수식, 숫자를 표현할 때도 한단락에서는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논문 전편을 통해서 같은 단어, 동일한 용어의 표기는 한글이면 한글로 한자면 한자로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념의 불일치를 갖여 올-염려가 없으면 외국어사용을 억제하고 가능하다면 우리말로 표현하거나 지문에서 꼭 다루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면 과감히 없애고 인용은 꼭 요긴한 곳에 적절하게 필요한 인용만 해야 한다. 문장으로 나타내자면 너절한 표현이 불가피하거나 혹은 아주 복잡하여 도저히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흔히 알기 쉽게 표나 그림을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작성법이 있는데 표는 정방향 모양, 표의 폭이 지문의 폭을 벗어

나서는 안되거나 표의 표제나 내용의 용어는 외국어로 표현하고 문장중이라도 명사나 형용사형은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며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며 표의 윗 부분에 놓고 유효숫자의 개념을 알며 소숫점이나 자리수가 일치하도록 배열해야 한다. 또한 그림을 작성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그림의 번호는 Figure 1, 또는 Fig. 1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고 표제는 외국어로 쓰되 그림 밑에 적고 표에서와 달리 첫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 저자의 고찰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과 규칙을 온전하게 지킨 한의학 관련 논문은 거의 없었다.

4. 논문설계, 분석 및 해석의 문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한의학회지에 실린 91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설계 및 통계적 분석 경향에 관한 이¹⁸⁾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 및 실험, 논문 설계 분석 및 해석 등에 많은 오류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기간, 실험표본총수, 각 집단별 표본총수 등을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통계기법과 관련된 오류가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t-검정, 다중비교법, 짝비교 분산분석 등 통계기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92.5%로 많다. 또한 14.3% 정도는 자료를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해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설계에서 대조군에 대한 용어상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기법에서조차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고 통계기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실험설계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연구자는 주장한다.

저자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전국 한의과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실험설계론이나 통계학 관련 과목이 개설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교

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및 분석 기법으로써 통계학 교육이나 논문설계법 등을 강화해야 한다. 즉, 교양과정에서 단기간에 통계학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좀 더 확대 강화하여 연구설계단계부터 실제 자료를 통한 분석 및 해석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체계적으로 그 활용에 중점을 둔 통계학 교과과정 등 관련과목의 개설이 요구된다.

5. 실험논문의 한계성

지난 수천년간 여러측면에서 한의학은 주관적인 경험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한의학을 신비화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보편타당성, 계량적 표준성과 재현성 등 과학적 지식-즉 지식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과정이나 방법 등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식-에 접근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었다⁷⁾. 실험적 연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문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동물실험 등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더불어 한의학에서도 최근 in vivo 및 in vitro 실험논문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표되고 있으며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험연구는 귀무 및 대립가설을 미리 설정하며 가설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확정하여 최종적인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가설을 확정하기 위한 적절한 학문적 설정이 필요하다.^{1-2),7)}

예를들어 정확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설정 및 분류, 실험환경의 control, 사용되는 동물 수 및 성별 분류, 실험목적에 알맞은 실험기간, 그리고 처리방법 등 실험과정이 객관적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실재 현상과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실험의 최종목적은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이나 실험동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¹⁸⁾

그동안 발표된 많은 실험 논문 등의 문제점으로는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실험하기 위한 실험, 논문 쓰기 위한 논문들이 다수이다(표 1). 예를 들어 현재의 많은 인간과 관계되는 질병들의 발병양상은 복잡화, 다양화, 누적화의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질병발생에 근거하여 실험 설계한 논문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alloxan, streptozotocin으로 유명한 당뇨병 실험¹⁹⁻²⁰⁾이나 CCl₄나 Bromobenzene으로 간손상 유발연구²¹⁻²²⁾나 Indometacin 유발 위점막손상²³⁾과 Collagen 유발 관절염,²⁴⁾ 난소적출로 인한 골다공증 유발,²⁵⁾ 그리고 H₂O₂ 인한 신장세포 손상²⁶⁾ 등 생체내 및 실험실연구 같은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질병 발생원인과 너무나 다르게 단순화된 과량의 화학물질로 해당 질병을 유발시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에 적용하거나 응용하기에는 논리와 합리성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많은 논문이 귀중한 시간과 노력,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분되거나 임상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인도적 문제로 직접 인체실험을 할 수 없으며 인간과 동물 종간의 차이로 실험결과를 인간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에는 이러한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의 여러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질병의 병태모형개발이나 실험에 사용하는 충분한 실험동물과 2종 이상이나 성별분류를 통한 인간과의 유전적 생리적 차이를 일정한 부분 극복하고 인간과 생리구조적,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거의 같은 원숭이, 개, 소 등을 실험동물²⁷⁾로 사용하거나 아예 실험연구를 제한하거나 자제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이렇게 실험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

을 하고 있는데 한의학 논문은 아직도 대조군과 실험군의 잘못된 분류, 군당 5~6마리의 실험동물, 한가지 종을 사용한 동물, 짧은 실험기간 등 소극적이며 단순한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은 상황이다.

Table 1.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방법 분포(1997-2000)

연구방법	한약제	한약제제	침구	기타	계
<i>in vivo</i>	39	20	9	9	77
<i>in vitro</i>	47	20	0	4	71
human	0	1	13	18	32

주: 1. 분석대상 세부과제 수: '97년 93개, '99년 8개, 2000년 24개, 합 170개.

2. "기타"에는 정책 및 문헌연구 포함.

3. 170개 세부과제에 대해 연구방법 총 수는 180개인데, 이는 1개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 신현규(2001b), pp.6-9

6. '고찰' 접근

고찰은 모든 논문에서 나타나는 논문의 구성에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논문관련 많은 연구자들의 기존의 연구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밝히고자 하는 사실들과 의견들이 모두 녹아있는 곳으로 '고찰이 충분하지 않은 논문은 가치가 없으며 결과만 기록하는 논문은 학술논문이 될 수가 없고 하나의 data수집이다.'라고 할만큼 중요¹⁾하다.

원래 고찰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어떤 결론에 이르도록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얻은 실험결과의 해석, 예외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결과 및 해석과 비교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까지의 결과서술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분량이나 紙面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나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이론적이면서도 공평한 태도로 공명정대하게 충분한 고찰이 되도록 얻은 결과를 여러모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자기 연구의 독창성이 충분히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고찰의 태도는 사실적이고 진실성에 근거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고찰하는 바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다루어야 하며 결과에서 멀리 떨어지고 즉 추상적인 고찰을 하거나 당연히 고찰해야 할 바를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찰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연구 제목과 관련된 다른사람의 논문을 가능한 많이 review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결과를 판정 비교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문헌만 유효적절히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시된 결과와 관련이 없는 타연구자의 논문을 계속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¹⁻²⁾

고찰에서 한의학논문의 문제점은 충분한 관련논문의 고찰을 기초로 하는 연구결과나 연구자의 논리적 전개내용이 따로따로이며, 논문과 직접관련되지 않는 참고문헌의 과도한 인용, 동물실험결과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연구결과의 확대해석문제, 연구자의 의견이 없거나 등의 본 논문에서 지적한 고찰분야의 의미를 인지하지 않는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비롯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7. 참고문헌

연구자는 문헌조사에 의하여 아이디어를 얻어 연구제목 선정하게 되고 문헌에 의하여 그 연구대목과 관련된 기초지식이나 과거에 이룩된 업적을 알게 되며 문헌에 의하여 특정 사상이나 데이터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하는 전과정에서 논문과 관련된 직·간접 참고문헌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즉, 쓰고자 하는 분야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학문 발달과정을 파악하는데 뿐만 아니라 문제점,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거나 개선해야 될

요소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고문헌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학문의 정확한 위치를 제시해주며 앞으로 연구해야 될 방향성제시와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는냐에 따라 논문의 성격, 내용 및 방향이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학문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분야와 관련된 직접적인 잡지나 문헌을 위주로 반드시 참고^{1-2),7)}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의학 논문의 참고문헌은 수천년전에 발행된 단행본과 오래전에 발표된 논문들, 그리고 간접자료 등으로 논문과 상관성이 적은 자료가 다수 인용·참고되고 있는 형편¹¹⁻¹³⁾이다. 이렇게 남이 연구한 기존의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은 권위있는 이론이나 주장 또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뒷받침하며 남의 이론이나 견해와 자기 所論과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역시 자기 주장의 정당함과 정확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이를 대조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문헌을 참고할 때에는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와 관계가 있는 문헌을 빠짐없이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논문에 인용할 때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해야 한다.

8. 연구주제의 편중성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의사들의 중요한 치료수단은 어떠한 질병이든 약물과 침, 뜸 등이었으며 또한 한의과대학에서도 본초와 방제, 경혈 및 침구 등을 중요한 과목으로 교육하고 실습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98~99년도 대한한의학회지¹¹⁻¹³⁾에 실린 논문의 연구수단에서도 순수 기초이론적인 것을 제외하면 87.7%가 약물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며 그리고 침

(10.2%), 일부 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임상논문의 구분에서도 기초논문이 27.9%, 임상관련 논문이 73.1%으로 임상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최근 한의학의 연구와 임상경향은 약물중심의 교육과연구 그리고 환자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연구는 아래의 몇가지면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원래 한의학은 약물침구치료중심의학이 아니라 心理, 飲食, 運氣, 運動, 氣功, 時辰, 環境, 按摩 등 비약물의료의 중시와 음양을 조화시킬수 있는 다양한 치료수단을 중요시하는 의학²⁸⁾이다. 또한 질병이 이미 발생하고 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전인 건강하거나 건강허약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미연에 막으며 또한 일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속에서 양생의 법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의학의 목표로 하고 있다.^{28, 29)} 이러한 한의학의 학문정신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의학의 연구방향이나 모습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긴 시간의 역사속에서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기 타

논문은 연구의 기록이며 과학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논문은 반드시 규격화된 양식과 체계가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골라서 표현하여 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에는 우연이나 시행착오는 의미가 없으며 발견이나 발명은 계획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얻어진다⁷⁾.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는 인류사회의 지식의 진전에 보탬을 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따라서 논문을 설계하고 연구 및 실험과정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발표된 논문을 고찰하여서 논문과 관련된 내용이나 실험과정 등에 관해서 타인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친

절하게 자세한 표현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험재료와 방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재료나 장치, 실험에 사용된 재료가 인간, 동물 또는 미생물인지, 생체 및 시험관 실험인지, 실험동물인 경우 동물에 대한 상세한 사항 특히 동물의 종류, 성별, 종, 나이 그리고 미생물인 경우는 종류, 균주 등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사용된 측정기계의 제작소, 기기 type, 생산된 국가, 특별히 고안된 것이면 그림을 넣어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험방법은 이미 알려진 방법을 썼을 때에는 구체적인 것을 피하고 어떤 방법을 썼다고 관련 문헌을 소개하면 되지만 연구자 스스로 고안한 방법일 경우에는 자세하게 기록해야 된다. 기타 마취법, 수술법, 약물복용법, 염색법, 정량법, 시험법, 기록법, 계산법 그리고 실험결과와 통계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논문에 소개하여야 한다.¹⁻²⁾

지금까지 한국 한의학 논문의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논문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중, 선후 등의 역사성에 근거해서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인물들의 학문발달과 건강과 질병치료, 학문적 발달에 좀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명감속에서 논문이 계획되고 연구과정을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자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논문작성법이나 실험설계법 및 통계학 등의 관련 학문을 정확히 교육하고 올바른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관련요소들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미 밝혀진 한국한의학논문의 문제점은 모두 논문작성과 관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논문작성 관련과목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한의학관련 논문의 질을 표준화하고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병치료를 하는 연구와 임상으로 학문중심이 편중되어 있다.

최근 한의학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양의학의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대안적으로 한의학의 치료 수단이나 기초이론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 의학수준 내에서 세계의학으로 한단계 높은 역할과 평가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동안 많은 한의학 관련 논문들이 한국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인 여망에 부응할 만큼 수준이 높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논문관련 학문적 접근이 실제로 여러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III. 결론

논문은 지금까지의 학문적 연속성과 성과를 밑바탕으로 새로이 연구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정해진 형식과 규칙 및 평이한 문장이나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적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문자화된 표현물이다. 이러한 논문의 정의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한의학 논문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논문의 최종목적은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연구분야의 학문발전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너무 어려운 漢字위주의 표현이나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과거의 언어들이 쓰여져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

둘째로 발표되는 많은 논문들이 학문적인 역사성이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의 주관적이거나 자의적 접근이 많아 학문의 올바른 발달방향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셋째로 논문은 일반적으로 형식이 없는 다른 창작물과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할 일정한 형식과 규칙이 있는데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다.

넷째로 많은 논문 특히 실험연구들 중에서 논문설계 및 분석의 잘못, 해석오류 그리고 연구의 목적 등을 상실한 논문이 많았으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조치도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다섯째로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의 시작시점에서 현재의 학문적인 위치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며 권위 있는 이론이나 주장 또는 표현들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주장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이나 고찰부분이 좀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약물, 침구 등 치료수단 위주로 질

참고문헌

- 1) 金始中 編著, 과학논문작성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 2) 建國大學校 論文作成法編纂委員會, 論文作成法 (自然科學篇),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 3) 움베르토 에코 지음,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이론과 실천, 1994
- 4) 수나하라 시게이치 지음, 임상의학연구방법론, 계축문화사, 1992
- 5) 윤봉자 지혜근 공저, 의학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6) 김준성, 이만열, 임인영 공저, 논문작성의 길잡이,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6
- 7) 신영수, 안윤옥 편저, 의학연구방법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8)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엮음, 의학실험방법론, 수문사, 1995
- 9) 민양기, 성명훈, 실용의학논문의 작성과 발표, 중앙문화사, 1997
- 10) 고흥화, 학술논문작성지침(II), 성원사, 1992
- 11)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지 19(1), 1998

- 12)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지 19(2), 1998
- 13)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지 20(1), 1999
- 14) 조명래 박영배, 열병질환의灸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2), p177-193. 1998.
- 15) 糖尿病醫方1000首, 科技文獻
- 16) 糖尿病良方1500首, 中醫藥
- 17) 포명혜 강극명 편저, 校訂 方劑大辭典, 의성당, 1990
- 18) 이정렬, 한의학논문의 연구설계 및 통계적 분석 경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논문, 1998
- 19) 姜信弋, 安世永, 두호경, 동의보감 소갈문에 수재된 처방들의 혈당강하효과에 대한 초보적 검색, 대한한의학회지 19(1) p27-37. 1998
- 20) 황승준, 양귀비, 玫瑰花根 약침이 Streptozotocin 으로 유발된 당뇨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19(1) p109-126. 1998
- 21) 우홍정, 이장훈, 김영철. 인진과 갈근이 D. Galctosamine, 급성 alcohol 중독 및 CCl4 중독 백서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18(1) p399-410. 1997
- 22) 한정훈, 신현철, 윤철호, 김종호, 정지천, 신역섭. 제조가 Bromobenzene에 의한 흰쥐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19(1) p49-65. 1998
- 23) 김경선, 신흥득, 가미향사육군자탕의 Indometacin유도 위점막손상에 미치는 항산화효과 대한한의학회지 19(1) p165-178. 1998
- 24) 김성재, 이연성, 김형균, 송봉근. 진교가 Collagen유발 관절염의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19(1) p368-384. 1998
- 25) 장수진, 이창현, 육태한. 자하거, 녹용, 홍화자 약침액이 난소적출로 골다공증을 유발한 흰쥐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19(1) p5-18. 1998
- 26) 김상범, 정지천. H₂O₂에 의한 신장세포손상에 대한 단삼추출물의 방지효과 대한한의학회지 19(1) p38-48. 1998
- 27) 이영순, 실험동물의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28) 楊維傑, 黃帝內經, 素問, 大一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六十五年
- 29) 이선동 만성퇴행성시대에서 양생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상지한의대논총 제2호, p1-14, 1999.